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례 및 관리방안 조사 결과 보고



목 포 시

(문화예술과)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I. 출장개요

○ 목 적

근대역사도시의 기능적 재생·활용과 관련된 해외 모범사례 실태 파악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근대역사문화공간(등록문화재) 조성사업 활성화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의 보존·활용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기 간 : 2018. 11. 04.(일) ~ 11. 11.(일) / 6박 8일

○ 조사인원 : 총9명 (문화재청 3명, 목포시 2명, 군산시 3명, 영주시 1명)

- 목포시 : 2명(문화유산담당 임진택, 학예연구사 박윤철)

○ 대상국가(도시)

- 프랑스(파리, 스트라스부르크), 독일(프랑크푸르트)

○ 공식 방문기관(4곳)

- 세계문화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re/ paris)

- 환경·도시 건축교육센터본부(Maison de l'Architecture/ paris)

- 도시건축 및 유적기념관

(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Musée/ paris)

- 독일건축박물관(German Architecture Museum/ Frankfurt)

○ 조사 유적지(5곳)

- (파리) 베르시 빌라주, 도시건축 및 유적기념관, 아랍문화원

- (스트라스부르크) 스트라스부르 대학 도서관, 컨벤션 센터

- (프랑크푸르트) 올드타운

○ 총 조사인원 : 9명 (※목포시 문화예술과 2명)

연번	기관명	직 급	성 명	비고
1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사무관	김용희	단장
2		행정6급	노국환	
3		행정7급	안형욱	
4	목포시 문화예술과	지방학예연구사	임진택	
5		지방학예연구사	박윤철	
6	군산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 6급	이길란	
7		지방시설 7급	김영중	
8		지방행정 7급	김영신	
9	영주시문화예술과	지방학예연구사	류지환	

○ 일정표

월일	시간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11.04. (일)	14:00 18:30	인천	파리		○이동(12시간 30분) - 인천(14:00)→파리(18:30)	
11.05. (월)		파리	파리	도시건축 및 유적기념관 (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Musée)	○근대역사도시 보존·관리 실태조사 - Bercy ○근대문화재 활용·전시기법 조사 - 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Musée (도시건축 및 유적기념관)	Zoé Macédo (project manage)
11.06. (화)		파리	파리	World Heritage Centre (세계문화 유산센터)	○근대건축물 보존 현황 조사 - Saint denis ○근대문화재 보존·활용관련 업무협의 - World Heritage Centre	Laurence Duwyn -Estrade (Senior Assistant)
11.07 (수)		파리	스트라스 부르크	Maison de l'Architecture (환경·도시 건축교육센터 본부)	○근대역사도시 보존·관리 실태조사 - Maison de l'Architecture ○이동(550km/ TGV 5시간) - 파리→스트라스부르크	Christine Leconte (Manager)
11.08. (목)		스트라스 부르크	스트라스 부르크		○근대역사도시 보존·관리 실태조사 - ANMA,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n Strasbourg (BNU) (ANMA 국립대학교) ○근대역사도시 보존·관리 실태조사 - Strasbourg Convention Centre (스트라스부르크 컨벤션)	
11.09. (금)		스트라스 부르크	프랑크 푸르트	German Architecture Museum (건축박물관)	○이동(230km/ TGV 2시간) - 스트라스부르크→프랑크푸르트 ○근대문화재 보존·활용관련 업무협의 - German Architecture Museum	Dr. Annette Becker (Manager)
11.10. (토)	19:30 13:15	프랑크 푸르트	인천		○근대역사도시 보존·관리 실태조사 - Frankfurt old town ○이동(10시간 25분) - 프랑크푸르트(19:30)→인천(13:15)	
11.11. (일)	13:15	인천	대전		○ 귀가	

II. 조사내용

2018.11.5.[2일차, 프랑스 파리]

1. 베르시 빌라주(Bercy Village) / 위 치 : 프랑스 파리 12구 베르시 지구

《조사개요》

○ 베르시 빌라주(Bercy Village) : 지역의 와인 산업역사 공간의 재생

프랑스 파리 12구 베르시 지구(Quartier de Bercy)에 있는 베르시 빌라주는 19세기의 지역의 와인 산업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의 역사적 장소였다. 이곳은 19세기까지 부르고뉴와 보르도에서 생산돼 온 와인을 전국으로 보내는 거점 물류창고였다. 파리 와인 거래의 중심이자 프랑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와인들의 집합지로, 거대한 와인 창고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베르시 인근에 대한 개발이 추진되면서 지가가 상승했고, 창고는 외곽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으며, 소비자들이 생산지에서 직송된 와인을 찾게 되면서 와인을 운반하던 기차 운행도 중단되면서 베르시는 와인 물류 중심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파리시는 1990년대 낙후되고 방치되던 베르시 지구를 재개발하면서 버려졌던 옛 와인창고들을 고풍스러운 경관 보존을 통해 새롭게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약 42개의 19세기의 대형 와인 저장고들을 역사기념물로 지정하고 역사문화 보존과 활용의 맥락에서 공간단위 보존과 활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역사 공간 내 문화재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현재 가치와 기능 재해석을 실시하여 레스토랑, 와인바, 옷가게,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활용 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의 특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베르시 지구의 재생 착안점으로 역사보존의 맥락, 즉 문화재 보존을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며 공간을 재창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역사 보존 요소로서 42개의 저장창고, 철로, 포도주 공장 등이 있으며, 이들 역사적 장소와 중요한 공간 요소를 보존하여 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역사자원의 요소를 현대적 기능에 맞게 재해석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합문화공간과 역사공원으로 재탄생 시켰다는데 역사문화자원 기반의 재생 성공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지역의 음악공연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2001년 완공된 이후 파리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어 모범사례로 주목할 만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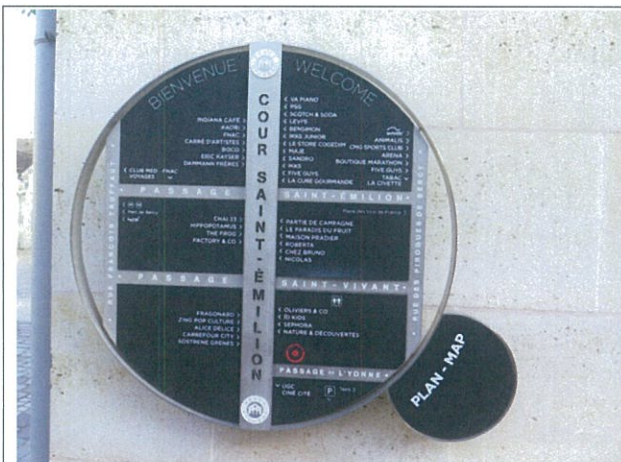
○ 현황사진



베르시 빌라주 입구



옛 저장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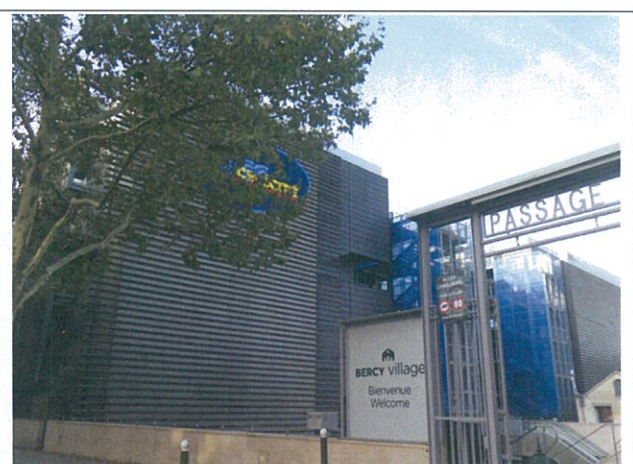
베르시 빌라주 위치 안내도



와인을 수송하던 철로(복원)



베르시 빌라주 상가



현대식 영화관

○ 조사내용 및 시사점 : 산업유산 역사공간의 보존 및 활용 방안

- 근대기 와인 산업의 역사적 장소(공간)의 보존과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옛 건축물과 철로 등을 보존하여 가치 재해석을 통한 지역의 특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지역재생 활성화 성공모델로서 우리나라의 1, 2차 농림어업 산업유산 역사공간 재생 접목에 좋은 해외사례임.
- 지역재생의 기본 원칙으로서 역사문화 공간 단위 보존 정책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내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과거와 현대의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을 하여 성공한 모범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큼.

2. 도시건축 및 유적기념관(Cite de l'Architecture & du Patrimoine)

/ 관계자 면담 : chefequipetrocadero(museum chef)

〈조사개요〉

○ 프랑스 전국의 역사적 건축물을 실물크기로 복원·전시

1937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상징으로서 건립된 샤이요궁 내 동쪽에 위치한 도시건축 및 유적기념관은 1882년 건립된 프랑스 기념관을 모체로 하여 프랑스 건축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증폭시킬 목적으로 2004년에 건립되었다. 이곳은 2007년에 민간에 개방되어 현재 박물관, 건축 센터, 도서관, 기록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건축 유산 관련 소장품과 및 기록들을 보존함으로써 과거부터 현대까지의 프랑스 건축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은 크게 3가지 테마를 기준으로 프랑스 기념물 전시관, 중세~19세기 건축물 전시관, 근현대기의 건축물 전시관으로 나뉘어있다. 프랑스 기념물 전시관 및 중세~19세기까지의 건축물 전시관에서는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기념비적인 프랑스 건축물을 실물 크기로 복원, 전시하여 입체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현대기 건축물 전시관에서는 에펠탑을 비롯한 19세기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의 외관과 내부 구조를 모형화하거나, 실물화하여 전시하고 있다. 또한 사진·그림·도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보다 입체적인 관점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시관에서는 산업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건축가들과 도시계획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나갔는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된 새로운 건축 자재에 대한 설명,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건축방법 등에 대하여 시각적 자료뿐만 아니라 체험도구를 제공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도시건축 및 유적기념관은 전시관 외에도 건축물 관련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미나실 대여를 통해 건축가뿐만 아니라 건축학도들에게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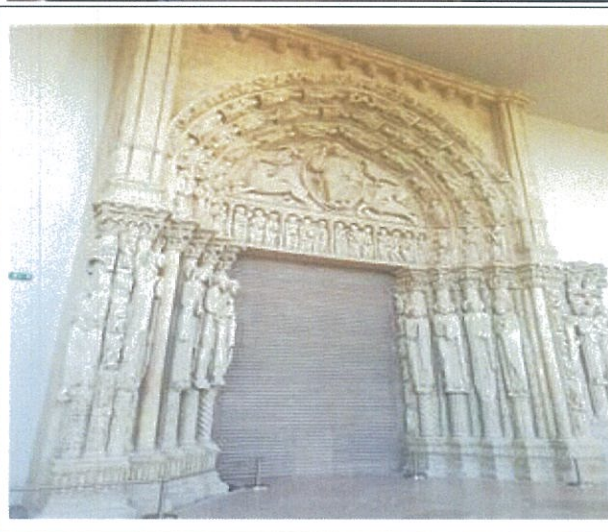
○ 현황사진



건물 외관



면담자(제일 왼쪽)



당시 건축물을 축소 재현하여 전시

○ 조사내용 및 시사점 : 건축사 체험 특화 공간 조성 기법

- 시대별 역사적 주요 건축양식과 유명 건축물의 일부를 실물 원형 그대로 재현하여 가까이서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전시한 건축박물관으로 프랑스의 건축발전사를 한 눈에 체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공간임
- 역사문화공간 재생 사업에 지역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주요 건축물을 재현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체험하는 건축사전시관을 조성하는데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

2017.11.6.[3일차, 프랑스 파리]

3. 유네스코(World Heritage Center)/ 관계자 면담 : Feng Jing(과장)

《조사개요》

○ 유네스코(Feng Jing 과장)의 면담요약 : 세계 역사도시의 경관보호 추구

1992년에 설립 된 세계 유산 센터는 세계 유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유네스코의 중점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협약의 일상 관리를 보장하는 센터는 세계 유산위원회와 세계 해사기구 국장의 연례 회의를 조직하고, 지명위원회 준비를 위해 당사국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요청에 따라 세계 유산 기금으로부터 국제 원조를 조직하며, 사이트의 상태에 대한 보고와 사이트가 위협받을 때 수행되는 비상 조치 모두를 조정합니다.

근대세계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은 유네스코에서도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보존과 개발, 두 아젠다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자 동시에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선 주민과 지자체, 중앙정부 사이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상대단체의 입장을 배려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안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의 한 도시(Pingyao)*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보존과 개발의 양측 입장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결국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존을 위해서 개발의 방향을 지혜롭게 변경하여 양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개발의 입장에 집중한다면 보존의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더 힘을 실어주고 집중할 것이냐, 즉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 유네스코에서는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 보존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현황사진



면담진행(가운데 정면: Feng Jing 과장)

○ 조사내용 및 시사점 : 문화유산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

- 세계유산은 단순히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세계유산과 관련된 지역과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편익 발생, 지역주민의 생활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핵심자원임. 따라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고갈시키면서 유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유산이 함께 상생하고 조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세계유산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해 가고 있음.

※ 중국의 “핑야오(Pingyao)” : Feng Jing 과장이 모범사례로 소개

중국 핑야오(Pingyao)는 중국 고대도시의 모습을 완벽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핑야오 고성이라고도 한다. 핑야오 성 안은 잘 정돈된 주택들과 도로들을 볼 수 있으며, 시내에는 명나라, 청나라 시대 전통 도시 가옥들이 즐비해 있다. 핑야오 시민들은 지금도 전통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고대 도시의 유적이 잘 보존된 곳으로 500년 동안 중국왕조의 건축양식과 도시계획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핑야오는 역사 도시 중에서도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완벽하게 전형적인 근대 이전의 중국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2018.11.7.[4일차, 프랑스 파리]

4. 아랍문화원(Institute of the Arab World)

《조사개요》

○ 아랍문화원 : 아랍전통(문양)의 현대적 해석

자금 : 아랍 국가 연맹과 프랑스 정부, 총 비용은 € 230,000,000

구성 : 지상 34층, 지하 4층으로 연면적 총 5만693㎡(약 3만㎡는 사무실,
3210㎡는 설비시설, 8132㎡는 강당, 9132㎡의 주차 공간으로 구성)

프랑스 파리 5구에 자리하고 있는 아랍 관련 연구소인 아랍문화원(Institute of the Arab World)은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 문화예술을 통해 프랑스와 아랍 19개 국가(이후 3개국 추가)의 우호를 증진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어 1987년에 완공되었다. 또한 아랍 세계와 국가 그리고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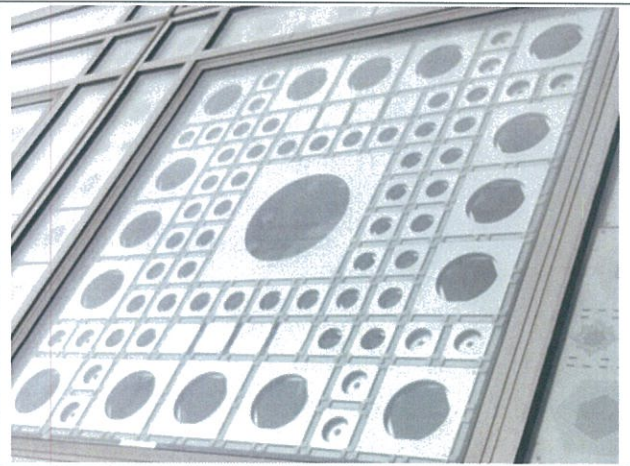
장 누벨, 질베르 레제네, 피에르 소리아와 아르키텍튀르 스튜디오의 공동 작업으로 건립된 아랍문화원은 서구와 근동의 건축적 콘셉트를 조화시켰다. 현대식 재질인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건축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물의 외벽은 아랍의 전통 문양 마슈라비아(mashrabiyya)를 연상시키는 240여 개의 창문으로 꾸며졌다. 이들 창문은 정교한 장치에 의해 햇빛 강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카메라 조리개 같은 기능을 한다. 창문은 원, 사각형, 육각형 등의 형태와 수학적인 정확함, 빛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신비함을 내뿜는다. 섬세함과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외부와 달리, 내부는 풍피두센터처럼 가설구조물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건축물 높이규정에 따라, 건물 높이도 주변 건물들과 같다. 좀 더 높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풍피두센터 앞 광장처럼 IMA의 광장 지대를 낮추었음에도, 층간 높이가 낮아 답답한 인상을 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인지, 유리 재질 특유의 투명한 느낌이 드는 건물 내부의 한가운데는 더운 지역의 내부 뜰인 파티오(patio)처럼 비워놓았다. 승강기 또한 4면이 유리로 되어있어, 파티오를 오르내리며 투명함을 즐길 수 있다. 이 투명함과 반대되는 지하의 닫힌 공간은 수많은 기둥에 의해 천장이 지탱되는 고대 이집트의 히포스타일(hypostyle)을 연상시키며 무겁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아랍문화원은 아랍권 국가의 문화와 예술을 보여주는 '상설 미술관'과 현대미술을 비롯 다양한 전시를 보여주는 '특별 전시장'으로 나뉜다. 1층에는 서점, 카페, 매표소가 있으며, 옥상에 올라가면 노트르담 성당, 유유히 흐르는 센 강, 파리의 정경이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테라스가 있고, 옥상 입구에는 레스토랑이 있다. 특히 계단이 인상적인데, 바빌로니아, 수메르, 아시리아의 지구라트(ziggourat)에서 영감을 얻은 피라미드식 계단에 책장이 있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필요한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다.

○ 현황사진



아랍문화원



아랍문화원 창문

- ※ 카메라 조리개 방식을 이용해 햇빛의 유입량을 조절하는 창이 있음. 창에 내장된 조리개가 모여 만든 규칙적인 패턴을 바깥에서 보면 아랍 전통 문양처럼 생겼음.



아랍문화원 옥상에서 바라 본 '파리 세느 강변(Paris, Rives de Seine)'

- ※ 프랑스 '파리 세느 강변(Paris, Rives de Seine)'은 도시와 관련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음. 문화와 도시 유형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다수의 건축물을 포함하는 역사유적군 혹은 유적과 주변 환경 그리고 도시 및 지역 등의 넓은 면적에 분포하는 문화유산을 포괄적으로 등재됨.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박물관, 에펠탑 등 하나의 독립적인 유적의 형태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지 않고, 파리 세느강변의 지리학적, 건축적 통일성을 근거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됨.

5. 환경·도시건축교육센터본부((Maison de l'Architecture) / 관계자 면담 : Christine Leconte(chief manager)

《조사개요》

○ 파리 환경·도시건축교육센터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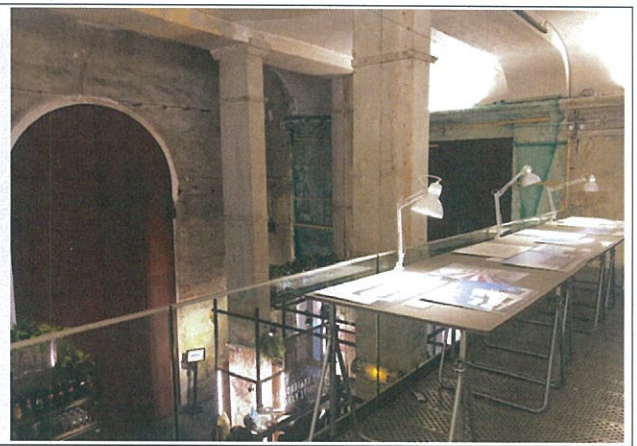
이곳은 파리에 있는 10,000여 명의 건축가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인 건축가의 집이다. 건물은 앙리 4세와 그의 부인인 마리 드 메디치의 후원으로 1603년 수도원으로 건립되었으며, 17세기 초에는 200여 명의 수도사가 활동할 정도로 번성하였다. 그 후 혁명을 거치면서 약탈로 인해 수도원은 폐쇄되고 병원으로 활용되면서 예배당이 축소되고 수도원의 일부가 파괴되었다. 1968년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수차례 건물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다.

2004년 파리 건축의 집 협회가 생겨나면서 이곳은 건축가, 프로젝트 기획자, 건설업자 등 개방적이고 세심한 건축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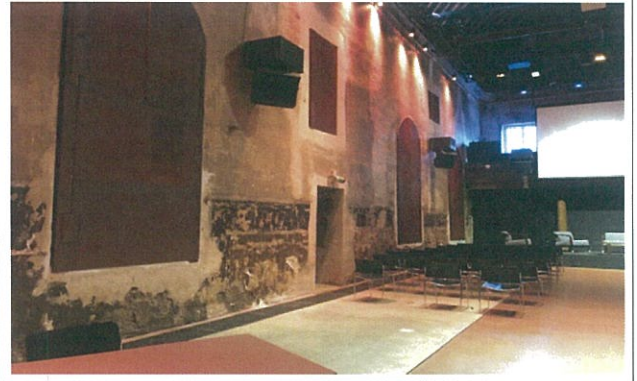
건립 당시의 건축양식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외관



건축의 뼈대를 노출시킨 내부 모습



협소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복층구조, 해체가 용이한 전시시설 설치



예배당을 소공연장으로 리모델링



면담자(왼쪽에서 4번째)

○ 조사내용 및 시사점 : 지역사회 공유 공간으로 활용

- 건립 당시의 건축양식의 원형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도 역사적 보존을 위해 건축의 주요 구조를 노출시켜 옛 모습과 흔적을 보존하고 있어, 옛 건축물의 보수정비 기법을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임
- 당시 건물을 복층구조로 변경하여, 2층은 예술작가 및 건축가들이 쉽게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적 공간으로 활용
- 1층은 소통공간으로서 예배당의 기능과 흔적을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소공연장 또는 토론장으로 활용, 일부 공간은 카페 컴퓨터로 활용

2018.11.08.[5일차,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6. 국립 스트라스부르크 대학 도서관(BNU)

《조사개요》

○ 스트라스부르 대학 도서관 : 전통건축물의 현대적 감각 적용

19세기에 건립된 이 도서관의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총 3단계(1950년대, 2006년, 2014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2014년에 진행된 프로젝트는 건물의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기존 구조물과 명확히 구분되는 현대적인 건축이 적용되었다. 이중 천장으로부터 떨어지는 빛의 향연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앙계단의 구조미와 상징성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도서관의 메인 공간인 이 공간은 수직동선의 역할과 유입된 자연채광을 내부 깊숙이 유도하는 매개공간이자, 5개 층으로 구성된 열람실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기존 건물이 구조물로 인해 막혀있던 것에 비해 도서관 내부의 개방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막힘없는 소통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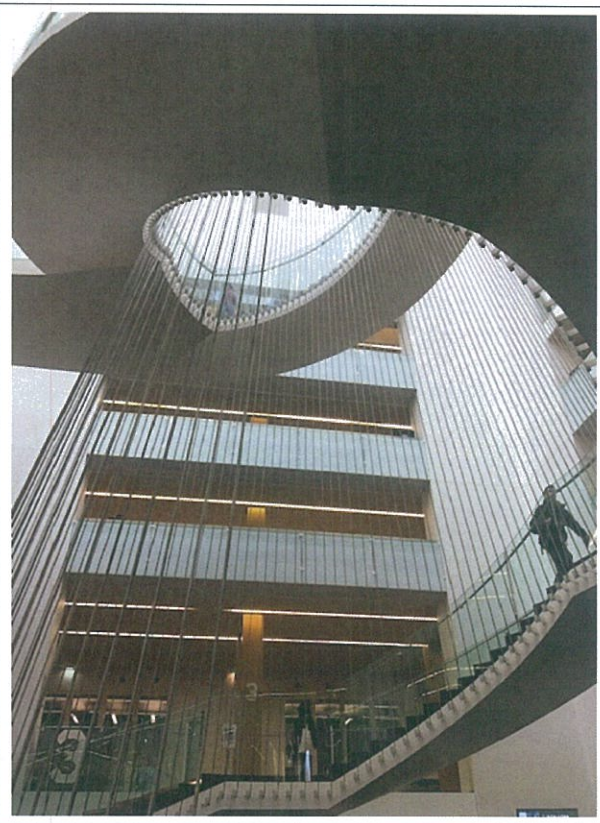
○ 현황사진



19세기 건물의 골격 보존



내부 공간(현대식 리노베이션)



전통 돔 양식 내부
(나선형 계단, 천장 개방으로 자연채광 유도/개방과 소통 추구)

○ 조사내용 및 시사점 : 문화재 건물의 본래 가치의 현대화

- 해당 문화재는 본래의 가치를 살려, 현대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재해석하여 내부 공간을 대학 도서관으로 역사성을 유지하며 현대적 감각으로 레노베이션을 통해 활용한 사례임.
- 현재 한국의 등록문화재 대다수 건물이 원래 건물 용도와 무관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원형보존원칙(내부 포함)을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향후, 가역성을 전제로 문화재의 본래 용도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간을 재해석하여 유연하게 활용하는 주목할 만한 사례임.

7. 스트라스부르크 컨벤션 센터

《조사내용》

○ 스트라스부르크 컨벤션 : 올드타운에 위치한 현대적 소규모 복합문화단지
프랑스 알자스 로렌지역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는 독일과 프랑스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독일과 프랑스의 잦은 전쟁으로 인해 여러번 국가가 바뀐 지역이다. 특히 17세기에 제작된 중세건축물이 집중되어 있는 스트라스부르는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이다. 스트라스부르 외곽에는 유럽의회와 인권재판소, 스트라스부르 컨벤션 센터 등 현대식 건물이 즐비하고 있다.

컨벤션센터는 시에서 직영하는 센터로 각종 전시와 공연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컨셉의 전시와 공연으로 복합문화단지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으며 구시가지의 세계문화유산과 더불어 스트라스부르 대표관광지이다. 또한 센터 주변에는 1922년에 한건축가가 젊은부부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되어 조성된 릴라/리라가 마을이 있다. 마을은 계획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마을구획이 잘 되어 있으며 오래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존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현황사진>



스트라스부르크 컨벤션 센터



컨벤션 센터 주변 릴라
/리라가에 조성된 마을

8. 프랑크푸르트 올드타운

《조사개요》

○ 프랑크푸르트 올드타운 : 2차대전으로 폐허가 된 역사공간의 재탄생

프랑크푸르트 올드타운은 대성당과 레머시청 사이에 위치한 레머광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드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건축과 현재건물이 조화를 이뤄 타운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문화재를 통한 지역재생과 관련하여 큰 영감을 주는 포인트이다. 올드타운은 1900년대 들어 건축물의 파사드에 초점을 맞춰 공모를 통해 재건축이 진행되었다. 이후 1920년대 프랑크푸르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강구가 필요하였고, 그 결과 올드타운 외곽으로 거주지가 확대 되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대성당을 제외한 올드타운은 폐허가 되었다. 이후 한동안 올드타운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다 광장 주변 관공서 등이 필요에 따라 재 조성되었다. 이 때 도시계획 수립 방법은 공모를 통한 제안으로 이뤄졌는데 파사드의 통일성을 맞추어 무조건적인 전통건축양식의 모방이 아닌 전통건축과 새로운 건축물을 조화를 강조하여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조성되었다.

이후 여러차례 공모를 통해 도시계획이 수립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올드타운은 2018년에 새 단장하여 현재 레머광장을 중심으로 15개의 재건된 건물과 20여개의 새로운 건물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 현황사진



레머광장 전통과 현대 건축물 파사드

○ 조사내용 및 시사점 :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복원

- 독일 프랑크푸르트 올드타운의 경우는 근대문화유산을 통한 도시계획과 보존·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파괴된 도시를 다시 계획하는 단계에서 단순히 과거 고증을 통한 복원만이 아닌 실용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함.
- 즉 파사드의 통일성을 맞춰 경관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현대적인 건축물과의 조화에도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모든 과정은 공모를 통해 이뤄져 관과 민의 소통에 의해 조성된 도시계획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18.11.11.(7일차, 독일 프랑크푸르트)

9. 프랑크푸르트 건축박물관

/ 관계자 면담 : Andrea Juerges(Deputy Director)

〈조사개요〉

○ 독일 건축박물관 : 도시의 역사경관보존 연대기적 과정 전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건축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이 즐비되어 있는 박물관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 중 건축박물관은 건축가 옹거스에 의해 19세기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리노베이션하여 대중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박물관의 특징은 기존의 건축물 구조와 장소성을 유지하며 박물관의 기능을 더한 '집속의 집'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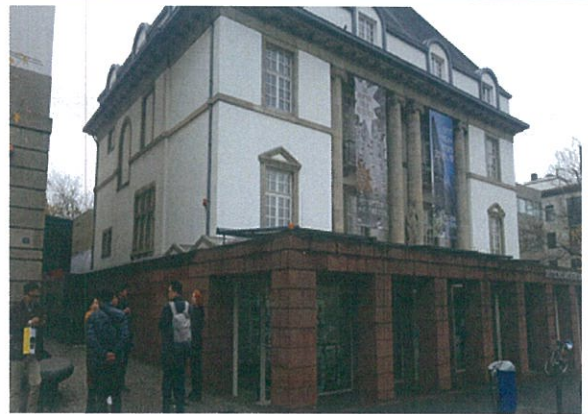
집속의 집이라는 컨셉에 맞게 자연스러운 동선의 흐름으로 전시관람이 가능하다. 전시구성은 건축의 역사, 특징 등 다양한 분야를 담고 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는 근대 도시계획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이미지와 구조물로 시간의 흐름을 이동 동선과 부합시켜 자연스러운 관람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는 2차 세계대전 때 건축물 훼손이 심하여 전통건축물에 대한 애착이 깊은 지역이다. 이에 시대별로 도시계획 및 건축물 파사드 등 건축경관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색적인 지역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다. 독일건축 박물관은 이러한 프랑크푸르트의 도시 건축의 공간적,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색 박물관으로서 더불어 근대건축 자산 활용의 우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 현황사진



2층 전시관
/ 면담자(왼쪽에서 3번째)



건축박물관 외관 및 전시장

○ 조사내용 및 시사점

-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2차대전의 피해를 딛고, 현시점에 이르는 과정의 역사 경관보존 연대기적 과정을 전시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추진 중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열개를 그리는데 시사하는 바가 큼.
- 근대건축자산과 현대 건축물들 간의 조화 그리고 공간 내 공적활용을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 등의 수립·제정 시 프랑크푸르트 시처럼 파사드 보존 등 경관의 통일성을 위해 건물 개인 소유주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III. 시사점 및 적용방안

1. 근대역사도시 보존·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성

○ 역사문화공간의 보존과 가치 재해석 활용

- (사례) 베르시 빌라주(Brrcy Village)는 면(공간) 단위의 역사적 상징 공간을 보존하여 공간 구성 요소인 철로흔적과 건축물 수복 등을 통해 역사적 경관을 회복하고 용도와 기능에 맞는 역사적 맥락 보존 관점의 가치 재활용.
- (적용) 군산 내항 역사공간의 경우, 역사적 흔적으로서 철로의 보존과 수탈공간으로서 역사적 맥락을 보존하기 위한 미곡창고 수복 등 경관 회복을 접목.

○ 통일된 경관(landscape) 유지

- (사례 1) 스트라스부르크(Starsbourg)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목조 구조 전통가옥 건축양식을 복원하고, 통일감 있는 경관보전 노력.
프랑크푸르트 올드타운(Frankfrt old town) 역시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면서 전통적인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의 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파사드 수리비 등을 지원
- (사례 2) 문화재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역사적 건축물 또는 경관 부조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통일성과 균형감 있는 경관보존을 위한 파사드 보수 지원 등 정책 필요.
- (적용) 개별 등록문화재가 아닌 사유 건축물의 경우는 전체 경관과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 검토 필요.

○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

- (사례) 프랑크푸르트 올드타운(Frankfrt old town)은 현재도 공모를 통해 도시계획을 수립함.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 설계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고, 당선된 설계 디자인도 협의체(committee)를 통해 주민들 의견을 재차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적용) 민과 관의 소통을 위해 일정한 협의체를 구성,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함. 또한, 역사도시 형성의 모든 과정에 주민이 적극 참여·주도할 수 있는 장치 필요.

2. 개별 문화재의 활용 방향 : 현대와 과거의 조화·융합

○ 전통의 현대적 해석

- (사례) 아랍문화원은 아랍의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인 건축 기법을 사용해 빛, 그림자, 문양 등으로 표현한 역사적으로 대단히 상징적인 건축물임. 전통문화를 재해석하여 대중에게 아랍의 역사와 문화를 한 걸음 가깝게 인지시키며, 그 지역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서 전통과 현대의 가치를 함께 보전 발전시킴.

○ 문화재 본래 가치의 현대적 가치 재생

- (사례) 스트라스부르크 대학 도서관은 외관만 철저히 고증·보존하되, 내부는 첨단 건축기법과 ICT 기술의 융합적 활용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현대식 복합문화단지 기능을 하는 컨벤션 센터는 고풍스런 마을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으나, 올드타운과 어색하지 않은 절묘한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

○ 다양한 전시기법 활용

- (사례 1) 파리 소재 '도시건축 및 유적기념관'은 1층은 카페, 예배당은 소규모 공연장, 2층은 예술가들의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객 또한 매우 많음.
- (사례 2) '환경도시 건축교육센터본부'는 프랑스 전역의 유명 건축 유산들을 세세히 원형 복원, 각 시대별 건축물들의 양식을 재현하여 한 곳에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전국 건축물의 발전과 변화양상, 역사적 흐름, 근현대시기의 시대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적용) 향후, 지정문화재로의 전환이 검토되는 등록문화재는 역사적·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해 문화재 주요부분(구조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원형 보수정비가 필요. 기타 등록문화재의 경우는 현대적 가치 재해석을 통해 활용하고 있는 해외 활용사례를 참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이원적 접근 방식이 요구됨.